

# 전쟁 트라우마 속 치열한 삶...“한국 정착하고 싶어요”

우크라이나전쟁 1년 - 광주 고려인 마을서 피난생활하는 우크라이나 고려인들

### 입국 875명 중 600여명 광주 정착...지역사회 모금 항공권 등 도움 홀로 입국 17세 소녀 “남은 가족·친구 걱정...전쟁 빨리 끝났으면”

“하루 빨리 전쟁이 종식되길 원하지만, 전쟁 트라우마 때문에 다시 돌아가기보다는 한국에 정착해 살고 싶어요”  
러시아의 침공을 피해 우크라이나를 떠나 광주 시 광산구 고려인마을에 정착한 고려인 동포들의 말이다.

24일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1년을 맞았다. 23일 고려인마을에서 만난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은 광주에서 치열한 삶을 살고 있었다.

고려인마을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광주에 온 고려인은 총 875명으로 이 중 600여 명이 광주에 정착했다.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모인 9억 원의 성금이 이들

의 귀국과 정착을 도왔다.

전쟁은 고려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 전쟁의 아픔을 잊기 위해 오히려 힘들게 일하면서 정착을 위해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있다.

지난해 7월 전쟁을 피해 광주에 온 다닐첸코 알레프 지나(여·37)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고려인마을에 있는 한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손님이 물리는 점심시간 잠시 앉지도 못했지만, 힘든 기색을 내기보다는 더 열심히 움직이기 바빴다.

우크라이나 크레멘츠크 지역에서 자녀 2명과 함께 살던 지나씨는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집 근처가 초토화되자,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



우가이 엘레나



안 알렉산더



다닐첸코 알레프 지나

기로 결심했다.

고려인마을 종합센터에서 항공권을 받아 광주에 도착한 뒤, 보증금과 생활품 등을 지원받아 광주에 정착했다. 다음달에 17살 아들은 새날학교, 8살 딸은 초등학교 입학할 앞두고 있다.

지나씨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조금도 힘들지 않다”며 “밤 10시에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아들과 딸이 잠을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데, 서로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하루

의 낙이다”고 웃었다.

칠순을 앞둔 안 알렉산더(69)씨도 직업을 찾고 있었다.

지난해 4월 아내, 딸, 손녀와 함께 한국에 입국한 알렉산더씨는 “우크라이나 집이 폭격으로 무너져 한 달간 지하에 피신해 살았다”며 “힘들게 한국으로 건너왔지만, 딸이 혼자 돈을 벌며 온 가족을 돌보고 있고, 손녀는 청각장애까지 있어 어려운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이어 “미안한 마음이 커 작은 일이라도 하기 위해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다”며 “노인을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 같은 것이 있으면 나같은 노인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더 쉬울 것 같다”고 말했다.

전쟁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고려인도 있었다.

지난해 11월 우크라이나 미콜라이프 지역에서 온 우가이 엘레나(여·17)씨는 “아직도 비행기가 날

아가는 소리를 들으면 몸서리가 쳐진다”면서 “잠을 자다가도 옆집에서 무언가 쿵 하며 떨어지는 소리가 나거나 밖에서 큰 소리가 들리면 벌떡 일어나 난다”고 말했다.

엘레나씨는 가족과 함께 살다가 전쟁을 피해 홀로 한국에 입국했다. 아버지와 오빠는 남성이자 외국으로 나갈 수 없어, 자신이 먼저 광주에서 일하고 있던 오빠를 찾아온 것이다.

엘레나씨는 “혼자서 기차를 타고 폴란드까지 갔다가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왔다”며 “아직도 우크라이나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을 생각하면 걱정이 돼 잠이 오질 않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신조아 광주고려인마을 대표는 “전쟁을 피해 한국에 온 고려인 대다수는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한국에서 여전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길 원하지만, 광주에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고려인들이 많다”며 “이들을 위한 일자리 마련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글·사진·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 “교직 전념, 아들 잃은 슬픔 이겨냈어요”

### 연평도 포격 전사 서정우 하사 모친 김오복 광주 대성여고 교장 퇴임

“연평도 포격”으로 전사한 광주 출신 고(故) 서정우 하사의 모친인 김오복 광주 대성여고 교장이 퇴임했다.

광주지방보훈청에 따르면 김 교장은 23일 광주시 남구 진월동 대성여고에서 퇴임식을 갖고 37년에 걸친 교직 생활을 마무리했다.

김 교장은 지난 2010년 11월 대성여고에서 영어 교사로 근무하던 중 만아들 서 하사의 전사 소식을 들었다. 추석 연휴 때 마지막 포상휴가를 나온 아들을 광주역까지 배웅해 준 것이 생전 마지막 모습이었다.

생애같은 아들을 잃은 뒤 김 교장은 교육에 전념하며 아픔을 이겨냈다. 서 하사가 생전에 남겼던 “엄마가 교사로 학생들을 위해 고생하시는데 자식된 입장에서 자랑스럽다. 학생들

을 먼저 생각하는 좋은 선생님이 되어달라”는 말을 되새기며 교단에 섰다.

김 교장은 “아이를 잃은 아픔을 겪고 많이 힘들었지만,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버텼다”고 돌아봤다. 김 교장은 퇴임 이후에도 교육자로서 경험을 살려 ‘보훈가족’을 돕는 일에 전념하겠다는 각오다.

다음 달부터 국가보훈처에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 ‘히어로즈 패밀리’ 멘토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멘토가 국가유공자 자녀를 찾아가 정서·심리치리나 학업 지원 등을 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광주에서는 올해 2명의 유공자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김 교장은 또 지난해부터 맡게 된 국가보훈처 정책자문위원 활동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김 교장은 “퇴임 이후에도 나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유공자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강제동원시민모임 27·28일 ‘2차 1인시위’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협상이 막바지로 치닫하고 있는 가운데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3·1절을 앞둔 27일부터 이틀간 ‘2차 전국 1인시위’를 진행한다.

시민모임은 ‘윤석열 굴욕외교 한일합의 중단! 일본의 식민지배 사죄배상 촉구! 3100인 1인 시위’를 27일과 28일 양일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1인 시위는 앞서 지난 15-16일 진행된 ‘전국 500곳 1인 시위’의 후속으로 3·1절을 앞두고 3100명이 전국 곳곳에서 정부의 해법안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1인 시위는 피켓 챌린지 형태로 진행해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SNS(인스타그램·페이스북·트위터 등)에 손으로 직접 쓴 A4용지, 직접 만든 플래카드 등을 들고

활영한 사진을 게재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피켓은 ‘양금덕 할머니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이어가겠습니다’라는 정해진 시안으로 제작해도 되지만 각자가 생각하는 바를 표현해도 된다.

사진과 함께 ‘#양금덕할머니와함께싸우겠습니다’, ‘#일제강제동원사죄배상’, ‘#강제동원정부해법폐기’ 등 해시태그 3개 이상을 포함해 전국적인 참여를 촉구하기로 했다.

이국연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공간적 시간적 제한이 있었던 1인 시위를 보완해 집 또는 사무실뿐 아니라 야외에서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마음 모으기’의 일환이다”며 “3·1절을 앞두고 양금덕 할머니와, 강제동원 피해자분들과 함께하는 마음이 SNS를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봄에도 가뭄 계속...평년보다 비 적게 온다

올봄 광주·전남지역에 평년(1991~2020년)보다 비가 적게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유례 없는 남부지역 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3일 ‘광주·전남 3개월(2023년 3-5월) 기상전망’을 내놓고 “광주·전남지역 올봄 기온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높겠지만,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이라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올봄 내내 광주·전남지역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지만 남쪽을 지나가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3월은 평년기온(6.9~7.7도)보다 높고, 4~5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강수량이다. 지난해부터 평년보다 적은 강수량으로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봄에도 비가 적게 내리면 제한급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올 3월과 4월의 강수량은 평년 3월 강수량(61.6~91.3mm)과 4월 강수량(80.5~119.2mm)과 비슷할 확률이 50%이지만, 5월에는 평년 강수량(110.1~131.4mm)과 비슷하거나 적을 확률이 40%로 예측했다.

지난해 3월에는 118.2mm의 비가 내려 평년보다 많았지만, 4월에는 75.1mm로 평년보다 적었고 5월에는 2.9mm의 강수량을 기록해 1973년 이후 ‘5월 강수량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유동적이지만 가뭄 극복에 도움이 되는 단비가 많이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

## 광주·전남 노동법 위반 신고

### 10건 중 8건 30인 미만 사업장

광주·전남에서 지난해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된 사건 10건 중 8건 이상이 ‘30인 미만 영세·중소기업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2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광주노동청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사업장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5인 미만 사업장’이 46.72%로 가장 많았다.

이어 ‘5~10인 미만 사업장’ 18.0%, ‘10~20인 미만 사업장’ 12.3%, ‘20~30인 미만 사업장’ 6.1%, ‘30~50인 미만사업장’ 4.4%, ‘50~100인 미만사업장’ 3.9% 순이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 수록 노동법위반 신고가 많은 것이다. 특히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지난해 말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 일몰로 인해 노사 간 다툼이 많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광주노동청은 중소기업 사업장이 관리 능력, 비용상의 문제 등으로 노무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보고 30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정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노무관리 지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노동관계법 관련 점검을 실시한 뒤, 취약부문에 대해 노무관리지도와 함께 개선신청 지시를 병행할 방침이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기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 SGI서울보증

## 광주금남로지점 OPEN

2023년 2월 1일, SGI서울보증 광주금남로지점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36 교보빌딩 7층 | ☎ 062-521-0041

꿈을 보증하다 희망을 더하다

SGI서울보증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 개원 20주년!!

2023년 계묘년 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